

무주산골영화제 '넥스트 시네아스트' 박세영

한국 영화미학 영토 확장할 감독 발굴 조명 프로그램 신설

초여름의 낭만 영화제 '제13회 무주산골영화제' (2025.6.6.~6.8.)가 한국 영화미학의 영토를 확장시킬 수 있는 예술적 비전과 능력을 가진 영화감독을 발굴, 조명하는 특집 프로그램 '넥스트 시네아스트'를 신설하고, 첫 주인공으로 박세영 감독을 선정했다.



박세영 감독

무주산골영화제가 올해 13회를 맞이해 한국 영화감독 특집 프로그램인 '넥스트 시네아스트'를 신설한다. 예술적 비전과 영화적 비전을 동시에 가진 새로운 한국 영화감독을 발굴하고 조명하는 프로그램으로, 최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영화를 응원하고 관객들에게 한국 영화의 다채로운 풍경을 선보이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실력과 가능성을 겸비한 한국 영화감독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관객들에게 소개함으로써 한국 영화감독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무주산골영화제'만의 특별한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으로 이름을 알렸다. 거침없는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세련된 이미지텔링을 통해 자신만의 영화 세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형식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명확한 영화적 비전을 가진 흥미롭고 인상적인 영화들을 창작해왔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박세영 감독의 초기 실험 단편영화와 뮤직비디오를 비롯해 배우 홍경이 제작과 주연을 맡은 <미셀>(2024), <괴인의 정체(거문고 라이브 연주 버전)>(2024), 작곡가 김오기의 뮤직비디오 연작 <저 구석 자리로 주세요>(2025) 등 최신작들과 그의 사진 작업에 이르기까지 '박세영 월드'를 이루고 있는 모든 작품들을 일반적인 영화 상영의 틀에서 벗어나 영상 전시의 형태로 최북미술관과 영화제 상영관에서 선보인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에는 시각예술과 문자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창작자들의 모임 소리그림이 참여해 기대를 더한다. 소리그림은 박세영 감독의 작품세계를 집중 탐구할 수 있는 다양한 라운드 테이블을 기획 운영하고, 소리그림이 제작한 박세영 감독 작품에 대한 비평 및 리뷰도 단순한 텍스트화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로 발표 및 배포할 예정이다.

무주산골영화제는 "‘넥스트 시네아스트: 박세영’이 비평과 창작의 경계에서 창작자와 관객, 영화가 서로 바통을 주고받으며 감독의 영화와 그의 세계를 입체적으로 살펴보는 연대와 우정을 위한 장소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아울러 한국 영화미학의 영토를 확장할 차세대 시네아스트의 새로운 창작론을 성찰하는 특별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힘찬 포부를 드러냈다.

한국 영화감독 발굴 조명 프로그램 '넥스트 시네아스트'를 신설하고 첫 주인공으로 박세영 감독을 선정해 기대를 더하는 '제13회 무주산골영화제'는 오는 6월 6일부터 8일까지 무주군 일대에서 개최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가능한 영화를 향하여' 특별전

전주국제영화제, 영화제작 현실 속 자신만의 대안 찾는 9팀 소개

26회 전주국제영화제(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가 특별전 '가능한 영화를 향하여'를 통해 영화제작과 미학에서 자신만의 대안을 찾는 9팀(트래비스 윌커스, 안데르그라운필름, 데클린 클라크, 마리 로지에, 니콜라스 페레다, 엘팜페로시네, 사망하자, 테드 팬트, 라두 주데)의 제작사와 창작자를 소개한다.

현실을 짚었다. 그러면서 "이번 '특별전: 가능한 영화를 향하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해결책을 찾는 이들과 그들의 작품을 소개한다"고 설명했다.

영화영상산업이 점점 거대해지는 구조에 저항하며 작은 자원이지만 많은 아이디어와 창의력으로 다른 영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영화들이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알베르 세라의 모든 영화를 제작하고, 알랭 기로디의 '미세리코르디아', 전주시네마 프로젝트 '에프터워터'를 공동제작한 몬세 트리올라 프로듀서의 마스터클래스도 5월 5일 메가박스 전주객사 1관에서 개최된다.

색션을 기획한 문성경 프로그래머는 "최근 거듭되는 변화와 이슬들로 인해 영화계는 지금까지 만들어온 근원적 정신마저 점차 포기하고 있으며,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현실 세계의 불평등이 작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감독들은 영화 자체보다 영화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자원에 더욱 헌신하여, 가장 중요한 영화를 만드는 것이 후과제로 보이기도 한다"고 최근 영화계의

전주국제영화제는 가능한 영화를 향하는 이들의 이야기와 작품 세계를 담은 책자 '가능한 영화를 향하여' 발간 소식을 함께 전했다. 영화제 기간 중 '가능한 영화를 향하여' 출판 기념 북토크도 진행될 예정이다.

"가능한 영화를 향하여" 출판 기념 북토크는 5월 5일 오전 10시 윈스타임오프 쇼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약 40분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박야네스 책임편집자가 사회자로, 데클린 클라크 감독과 박송열 감독, 윈하타 프로듀서가 게스트로 참석한다.

/김재훈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별이와 무지개다리' 어린이 국악뮤지컬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오는 5월 5일 어린이날, 지난 3월 초연에서 반격전의 만남과 이별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에 국악과 동화적 상상이 더해진 무대 구성으로 관객의 공감을 얻은 어린이 국악뮤지컬 '별이와 무지개다리'를 다시 무대에 올린다.

들이 감정을 표현하고 교감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무지개다리, 플라스틱 섬, 구름언덕 등 상징적인 공간이 더해져 어린이의 상상력과 감수성을 자극하는 무대로 완성되었다.



서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별이와 무지개다리는 강아지별 '구수라라'에서 지구로 향하는 강아지들의 여정을 담은 판타지 이야기로, 어린이 '지율이'와 반격전 '별이'의 만남과 이별을 통해 사랑과 책임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전한다.

연출과 각색은 국립민속국악원 무용단의 김세희 단원이 맡아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으며, '무지개 요정' 역으로 무대에도 함께 오르고, 국립민속국악원 단원들이 주요 배역으로 출연해 극의 중심을 이끈다.

관람은 출생일 36개월 이상부터 가능하며, 공연은 약 70분간으로 전석 무료로 운영, 예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에

남원시, 춘향제 현장 총력 점검

남원시는 지난 24일, 최경식 시장 주재로 오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남원 관현투연 및 시내 일원에서 '춘향의 소리, 세상을 열다'를 주제로 개최하는 제95회 춘향제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콘텐츠를 통해 남원의 문화적 위상을 세계에 알릴 예정으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현장보고회를 개최했다.



계획 점검과 행사 주요 장소를 직접 순회하며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최 시장은 관현투연, 요전 일원, 도심 행사장 등 주요 거점을 직접 방문해 개·폐막식 무대 설치 상황, 대중 길놀이 동선, F&B존 운영 계획, 시민 참여 프로그램 배치 현황 등을 세밀하게 확인했다. 특히, 교통 대책, 임시주차장 확보 계획, 차량 진·출입 동선, 혼잡 시간대 분산 방안 등 실질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보고받으며 보완점을 주문했다.

최경식 시장은 "춘향제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 5대 종교 성지·치유 관광 재조명

전북문화관광재단 '전북성지혜움길', EBS 다큐멘터리 '한국기행' 방영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 이하 재단)이 추진 중인 종교관광 콘텐츠 '전북성지혜움길'이 EBS 대표 다큐멘터리 '한국기행'을 통해 전국 시청자들과 만난다.



익산 나비위성당(전북성지혜움길 스텝컷)

'전북성지혜움길'은 전주, 익산, 원주 등 전북 지역에 위치한 5대 종교(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천주교)의 대표 성지를 하나의 코스로 잇는 전북형 치유 순례길이다. 전북 교유의 종교문화 자산을 아우르며, 치유·명상·사색을 주제로 한 체험형 힐링 관광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다.

성찰의 여정을 담은 깊이 있는 내용으로 시청자들에게 진한 울림을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이번 방송이 전북성지혜움길의 의미와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전북 교유의 종교문화 자원을 엮은 전북성지혜움길이 국내 대표 종교관광 코스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방송은 전북성지혜움길을 통해 전북의 종교문화 정체성과 치유 관광의 가치를 전국 시청자에게 소개하고자 기획됐으며,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매일 밤 9시 35분, EBS 1TV '한국기행'에서 총 3부작으로 방영된다.

'성지혜움길을 걷다'라는 제목의 이번 방송은 EBS1 '한국기행' 시리즈 '봄바람 따라 성지길' 중 일부로, △전동성당(전주), △천호성지(원주), △두동교회(익산) 등 주요 성지를 중심으로 4월 초 촬영했다. 배우 박송열이 직접 순례 코스를 체험하며, 그 여정을 담아내 시청자들의 몰입을 도울 예정이다.

한편, 재단은 올해 하반기 중 온라인 여행사(OTA) 등록 등을 통해 '전북성지혜움길'을 누구나 쉽게 예약 및 참여할 수 있는 관광 상품으로 정식 출시할 계획이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전북성지혜움길'의 여정을 따라가며, 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종교의 의미와 회복의 순간을 조명한다. 특히, 치유와

또한, 앞서 재단과 EBS는 지난해 11월, 전북특별자치도의 문화유산과 관광지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콘텐츠 제작 및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회경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漢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일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단간을 들었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단간을 들었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 때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더하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